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수출액 10억 원당 고용 유발 12명에 불과
- 美, 非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

경영 노트

- 중국의 “7대 테마 경제”

사회 트렌드

- 헬리콥터 보이
- ‘부’보다는 ‘혈압’이 행복 척도

저널 브리프

- 지식대통합의 신개념 “통섭”(統攝)

洗心錄

- CEO의 10가지 행동 요건

□ 수출액 10억 원당 고용 유발 12명에 불과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3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 나라의 경제구조’에 따르면 수출액 10억 원당 취업자 유발 효과는 12.7명으로 1995년(26.2명), 2000년(16.6명)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음
 - 이는 우리 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이 취업자 유발 효과가 적은 정보통신 기기 등 자본과 기술 집약적 상품으로 전환되고 있는 데 기인함
 - 특히 소재·부품의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해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도 0.647로 낮아져 일본의 0.892에 비해 30%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반면 투자액 10억 원당 취업자 유발 효과는 15.1명으로 수출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임

- 부문별로는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유발 효과가 12.1명을 나타내어 20.5명을 기록한 서비스 부문에 비해 취업자 유발효과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조사됨

□ 美, 非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

- 버냉키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 6일 정부 투자 모기지 전문 금융회사인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러한 경고는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가장 위험도가 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모기지 금융회사와 투자은행의 부실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기록 거래가 없는 사람에게 높은 금리를 받고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담보대출로, 현재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은 미국 경제의 심각한 침체와 세계 경제의 위축뿐만 아니라 신흥 금융시장에서 과잉 유동성의 급격한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의 '7대 테마 경제'

- (개요) 중국시장에 대한 새로운 공략법으로 '테마 경제'가 주목받고 있음
 -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최근 중국 사회의 새로운 흐름인 '7대 테마 경제'를 활용하여 중국 시장을 공략할 것을 권고함
- (7대 테마 경제) '7대 테마 경제'는 소득수준 향상과 개인의 개성 강조 등, 중국의 소비문화 변화를 반영하는 7가지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의미함
 - (녹색 경제) 소득수준 향상으로 유기농식품 등 건강 관련 산업이 급성장
 - (엄지 경제) 4억 5,000만 명에 달하는 휴대폰 가입자를 겨냥한 휴대폰 게임, 컬러링 등의 부가서비스 시장이 매년 50% 이상 급팽창하고 있음
 - (오토케어 경제) 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세차, 차량 인테리어 등 차량 관련 사업이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음
 - (캠퍼스 경제) 50여 개 대학가에 형성된 현대식 캠퍼스촌을 중심으로 600만 대학생을 타깃으로 하는 신세대 아이템이 인기를 끌고 있음
 - (創意 경제) 중국은 과거에는 OEM 생산에 치중하였으나 최근에는 각종 디자인 설계, 아트 갤러리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음
 - (DIY 경제) '남과 다른 나'를 추구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면서, 자기만의 제품을 추구하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펫 경제) 애완동물 양육과 관련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중국의 7대 테마 경제>

테마	내용	시장 규모
1. 녹색 경제	유기농 제품, 천연음료 개발 및 생산 등	약 18조 원
2. 엄지 경제	모바일 접속, 휴대폰 컬러링, 휴대폰 게임 등	약 12조 원
3. 오토케어 경제	세차 주차장, 차량 인테리어, 중고차 매매 등	-
4. 캠퍼스 경제	북 카페, 디지털 전문점, 패스트 푸드 등	-
5. 創意 경제	디자인 설계, 아트 갤러리 등	-
6. DIY 경제	도예공방, 십자수 소품, 수공예 완구 등	약 18조 원
7. 펫 경제	애완동물 병원, 애완견 미용 전문점 등	약 1조 8천억 원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 (시사점) 추구 가치의 다양화와 차별화를 반영하는 중국의 새로운 소비 문화를 활용한 시장 접근이 필요함
 - 새로운 소비 계층의 등장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이 요구됨

□ 헬리콥터 보이

- 부모의 과잉 보호를 받고 자라면서 부모와의 애착이 유난히 강한 헬리콥터 보이(Helicopter Boy)가 나타남
 - ‘헬리콥터 보이’는 헬리콥터 프로펠러처럼 자녀의 주변을 맴돌며 간섭을 멈추지 않는 ‘헬리콥터 부모’ 밑에서 자란 20대 남성을 지칭함
 - 최근 27세 이하의 대졸 남성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7%가 ‘부모가 직접 지원회사를 결정하였다’고 응답함
 - 심지어는 아들의 연봉을 회사와 협상하는 부모도 있다고 함
- 이들은 직장 선택뿐만 아니라 직장 내 문제 해결에까지도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음
 - 응답자의 22%는 ‘직장 내 문제 발생시 부모가 회사로 직접 전화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60%는 ‘부모가 문제해결을 촉구’했다고 응답함
 - 헬리콥터 보이 신드롬은 지나친 ‘아들 사랑’이 원인으로, 지나친 관심의 사회 부적응과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임

□ ‘부’보다는 ‘혈압’이 행복 척도

- 경제 성장에 따른 부의 증가보다는 안정적인 혈압과 정신 건강이 한 나라 국민의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
 - 영국 워윅 대학 앤드루 오스왈드 교수 연구팀이 16개 유럽 국가에서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등 행복도가 높은 나라 국민의 평균 혈압은 포르투갈, 독일, 이탈리아 등 행복도가 낮은 나라의 평균 혈압보다 낮고 안정돼 있었음
 - 즉 행복한 국가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행복도와 고혈압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음
- 지난 달 26일 발간한 유럽 표준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럽인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체감행복도에서는 덴마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핀란드의 순이었음

□ 지식대통합의 신개념 ‘통섭(統攝)’ *

- (개요) 학문과 학문간, 학문과 현실간에 경계를 허무는 ‘통섭(統攝)’이 기업들 사이에서 新코드로 등장하고 있음
 - ‘통섭’이란 원효대사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말로, 지식의 대통합을 의미하는 라틴어 계통의 ‘컨실리언스’(Consilience)를 우리말로 번역한 용어임
 - 2005년, 최재천 교수가 에드워드 윌슨의 저서 ‘컨실리언스’를 번역하면서 세간에 널리 퍼짐

- (현황) 경쟁력 향상의 핵심인 기술 발전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새로운 경쟁력인 상상력을 획득하는 접근 방안으로 통섭이 유용하기 때문임
 - 한국의 경우, 이화여대의 통섭원, 서울대의 범 학문 통합연구소 등이 최근에 설립되어 통섭 개념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임
 - 미국도 ‘연구원 사회’(Society of Fellows)라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현재 미술대학과 컴퓨터 공학, 프로그래밍과 경영까지 교육하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

- (사례) 새로운 아이디어 및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통섭’은 산업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음
 - 도마뱀의 생태연구와 로봇기술이 합쳐진 도마뱀 로봇이나 식물의 잎에서 발명된 태양전지, 거미줄을 응용한 강철섬유 등이 자연 통섭의 예임
 - 방송·통신의 융합이나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인터넷TV(IPTV) 등 컨버전스를 통한 신산업들도 포괄적인 면에서 통섭에 속함

- (시사점) 지식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유형의 통섭을 적절히 활용해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탐색해야 함
 - 기업들은 개방형 R&D 시스템의 일환으로 통섭 연구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제휴를 통해, 새로운 발상의 제품 개발 및 신사업 개척에 활용
 - 인재교육 차원에서도 통섭 개념을 활용해 창의력 배양에 주력해야 함

* 이 글은 『주간조선』(2007.3.5)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CEO의 10가지 행동 요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넓은 리더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다. 자기개발 전문가인 데브라 벤튼은 그의 저서 『CEO처럼 행동하라』에서 CEO가 가져야 할 행동 요건 열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자신에게 충실하라. 성실성은 CEO의 제1원칙이며 리더십의 전제 조건이다.
2. 현재 처한 위치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미래를 정확히 보아라.
3. 효과적인 결정을 내려라. 효과적인 의사 결정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 미래를 만드는 기본이다.
4.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라. CEO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며, 자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임과 커뮤니케이션에 최선을 다하라.
5.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라. 위대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을 얻어야 한다.
6. 자금 조달과 보호에 최고가 되어라. CEO의 유일한 성적표는 자금 현황이다.
7. 힘든 경우에도 CEO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조직 내에서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펼치고, 조직 밖에서는 탁월하게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어야 한다.
8. 복음을 전하듯 세일즈를 하라. CEO가 판매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9. 훨씬 크고 더 멀리 생각하라. CEO는 특정 조직만의 리더가 아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이며 요구이다.
10. 쓸데없는 일은 버려라. 가족과 자신만의 시간을 유지하고 주변의 모든 복잡한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

데브라 벤튼은 성공한 CEO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갖추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칙과 전략을 목표라는 지향점에 효과적으로 ‘조음’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간단하게 만드는 것은 복잡한 일이다.”**

메이어의 법칙(Meyer's law)